

선택 (민수기 17:1-13)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면 끝난다. 지금 언약을 잡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린다. 인간에게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이 언약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생명 안에 있는 약속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을 보면 언약을 사는 사람은 전부 승리했다. 조건은 언약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고난중에, 문제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 언약 잡은 예배가 되기 바란다. 조그마한 말씀 한 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그 당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공알만한, 내 느낌에 공알만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꼭 싸우는건 아니지만 그 말씀 하나를 못 이기고 결국 약국 정리하고 신학교 간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세계복음화 이야기 하는 사람이 되었다. 옛날과는 비교할수 없는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 들어온게 아니다. 조그만거 하나 들어왔는데 인생을 뒤집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중요한 장군이 하나 나온다. 이 사람은 아람나라, 그 당시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당시 최고 가는 장군이였다. 그런데 문둥병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쳐들어 가서 이스라엘에서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다. 그런데 소녀가 한 말을 듣고 나중에 엘리사에게 가서 이 장군이 문둥병 치료받는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 평생에 임하는 응답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 말 듣고 인생이 역전된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잡고 예배 드리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주간 평생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말씀 달라고 기도하기 바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기적이 숨겨져 있다.

1. 선택

오늘 이야기는 16장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반역하는 기록들을 기록해놨는데, 오늘 이야기도 빼수 없는 이야기중 하나이다. 오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목사의 권위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릴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 본문으로 교회 안에 적용해서 목사의 권위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메시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 적용할 필요 있겠는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바쁘네.

16장 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다고 하였다.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자, 곧 회중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고 하였다. 위에 있는 네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대표 250명을 뽑아서 무리를 만들고 모세를 찾아갔다는 것이다. 한 말이 뭐냐면 3절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좀 심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니만 성령받았어? 우리 온 교회, 온 총회가 다 성령 받았는데..이런 말이다. 너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나?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이 때 모세가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옆드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게 5절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면서 그 후에 읽어보면 향로를 들고 250명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거룩한지, 누구를 택했는지 하나님이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만 거룩하나? 우리도 거룩하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고 모세가 기도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각 250명이 향로를 준비하고 그 향로를 들고 내게 나오게 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6장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냈다는 것이다. 이 무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가 함께 가고 거기에 사람들도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텐트에 갔다. 그리고 그 때,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가족들과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섰다는 것이다. 처자와 유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아이들도 있었는데, 전부 장막 문 앞에 섰다는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도 나와있다. 31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서있던 땅바닥이 갈라졌다는 것이다. 이 그가 누구냐면 모세이다. 모세가 뭐라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만 만일 땅이 갈라져서 죽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장로들하고 백성들에게 말했다. 고라와 다단 가족들도 다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것이다. 니가 이 말을 하라고 했던 것이다. 32절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삼켰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과 제물, 텐트 다 싹 들어갔다. 34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도망했다는 것이다. 자기들도 상상을 못 했을 것이다. 갑자기 그렇게 되니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도망갔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도 그 이후에 다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41절을 보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다. 뭐라했냐면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는 것이다. 참 황당한 일이다. 왜 너가 백성을 죽이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모세가 깨달았다. 말씀을 썼을 것이다. 백성중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급히 불렀다. 너는 향로를 들고, 이 향로가 기도인데, 이것을 들고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이 전염병을 막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향로를 준비한 아론이 이미 죽은자와 산자의 중간에 서니까 전염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49절에는 이렇게 말한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자가 14,700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였다. 내가 누구를 택하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팡이에 각 이름을 쓰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론은 레위지파의 대표로 이름을 쓰라고 했다. 그런데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열매가 맺혔다는 것이다. 그럼 결론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며 아론과 모세가 뭐가 다른지 결론이 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왔다는 것이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죽고 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 번이나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유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히다. 1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다 죽어야 하냐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여호와와 성막에 나아간자가 누구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따르던 250명이였다. 생각해보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간 자들인가? 별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다. 죄사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데, 우리가 다 죽냐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며칠만에 찾아왔다는 것은 안 나와 있다. 전염병은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위 또 다른 대표 250명이 몰살을 했는데, 이튿날 찾아왔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돌로 던지려고 했다. 돌맞아서 죽는 것을 영화에서 봤는가?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만사천칠백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다.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후에, 250명 죽은 이후에 지팡이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다음날 와서, 그 지팡이 전부 꺼내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열매가 맺힌 것이다. 마른 지팡이였는데 말이다. 이것으로 끝날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다. 아주 긴 이야기이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모세와 아론은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은 같고 신분은 같을 지라도 나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같다고 말했다. 어쩌서 너만 거룩하나?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거룩하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함께 하는데, 왜 니가 왕이 되려고 하냐는 것이다. 이것이 고라 일당의 논리였다. 신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아닌 것이다.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선택이 다르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이 다른 것이다. 직분이 다르면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하나님 주신 권위도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세에게 말을 주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르면 근본적으로 다 다르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왜냐면 말씀은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생명의 근본, 삶의 근본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없이는 절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어디를 가야 물이 있는지 모른다.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지 모른다. 이것을 전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운명이었다. 왜냐면 오직 말씀이 답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너희와 다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 포인트이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유이다. 그것은 가나안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내가 바꾸지 않고 양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다. 그 시간표에 그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 그 시간표에 모세 외에는 절대 답이 없다는 것이 절대 선택이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선택했다. 땅이 많았다. 그런데 가나안을 선택했다. 그 시간표에 가나안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선택이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은 없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므로 끝이다. 살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기 싫다고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더 큰 메시지이다. 분명히 모세, 아론은 다르다. 신분적으로는 같다. 다 같이 성령받았고 다같이 거룩하다. 그러나 다르다. 그것보다 더 큰 메시지는 모세와 아론을 왜 세웠는가 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 가려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을 더 이후에 계속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 인생 역사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는다.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이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이거 알고 여기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0명이 한꺼번에 불타 죽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이 땅에 꺼져 죽는 것을 보고도 찾아온 것이다. 참 환장할 노릇이다. 또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죽는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주동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은 가족이 다 죽었다. 유아들도 있다고 써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거 정말 싫어한다. 성경공부 해보니까. 아이도 죽인다면. 날때부터 죄인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다. 아이가 하나님인가? 잘 키워야 귀한 것이다. 잘못 키우면 세상의 악이 된다. 그래서 주동자는 온 가족이 다 죽었다. 250명도 반대했다. 땅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너하고 나하고 틀리게 뭐냐며 대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서 대충 반대했으니 자기만 죽고 가족은 안 죽었다. 그런데 16장을 잘 읽어보니까 처음 반대한 네명중에 온이 빠졌다.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였다. 그 다음에 온이 있었는데 온이 빠졌다. 본래는 온의 가족들도 땅에 파묻혀야 하는데 빠졌다. 내 생각에, 온이 마지막에 꼬리를 내렸나 싶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입장에서 배신자였을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니가 지혜가 있다. 막판에라도, 세계복음화 반대하면 안된다. 주동으로 반대하면 가족들도 죽는다는 것이다. 고라, 다단, 아비람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250명을 끌어 모으려면 논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논리의 바탕이 무엇인가? 우리는 같다는 것이다 모세라고 해서 다르게 뭐냐는 것이다. 이게 250

명을 끌어모으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인데, 논리가 확실한 사람이다. 맞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르게 불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놓친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뀌지 않는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절대 언약이다. 그리스도 절대 언약이다. 다른말 하면 안된다. 아무말 하지 말고 여기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란다.

2. 사명

사명은 신자의 또 다른 생명이다. 이것은 신자의 힘이다. 아주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를 하신다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목표가 뭐냐면 가나안 이야기이고 세계복음화 이야기이다. 몇주전에 민수기 14장 볼 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무슨 말이나면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오해를 많이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울고 그러는데, 좀 봐주지, 40년동안 죽을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 가나안을 가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더 잘사는 일이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거짓말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고 바로를 쳐버렸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면 되냐고, 불합리하게, 왕이 뭘 잘못했다고 왕을 치냐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합리적이다. 왜냐면 아브라함을 살려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깨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질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발목이라도 잡히게 되어 있다. 250명이 매일 와서 한명씩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세야 기도로 이기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적어도 발목을 잡힐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모세가 아니고,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250명이 자기 가지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가서 죽게 되었다. 고라 일당은 우리는 모세를 반대하고 아론을 반대했지 가나안 가는거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가나안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가나안 가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목사이야기도 아니고 장로이야기도 아니다. 가나안 이야기이고 세계복음화 이야기이다. 이거 가로막고 선다면 너 살수 없다는 것이 메시지이다. 그러나 너가 여기 들어오면 내가 너 축복할거야. 모세처럼, 아론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너는 반대하는 쪽에 서지 말라는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를 잊지 말고 평생 생각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은 신자의 또 다른 생명이다. 이것 있는 자는 살 힘이 난다. 살고 싶어진다. 영적으로 힘이 난다. 인생을 더 살고 싶고, 더 많이 일하고 싶어진다. 살아가 할 이유를 아니까. 신자는 누구든지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흑시 핑계가 되어서 예배 오는 것이 쉽게 안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에 속지 말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금요일예배, 수요일예배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함께 가야 하고, 모든 영적인 축복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언약으로 승리하기 바란다. 누리고 있으면 정복하는 날이 온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으라. 그것으로 살면 된다. 남은 것은 시간표이다.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캠프에도 중요한 응답이 있기 바란다.